



문승현 | 대한출판문화협회 국제부

한국관 내부 전경.

제2회 방콕국제도서전이 방콕의 강남이라 불리는 수쿰빗의 '퀸 시리킷 내셔널 컨벤션 센터'에서 2004년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12일 동안 개최되었다. 태국출판서적상협회(Publishers and Booksellers Association of Thailand, PUBAT)는 2002년까지 태국도서전이라는 국내 도서전을 매년 개최해오다 2003년부터 국제도서전으로 개최하기 시작했다. 방콕국제도서전의 총 전시면적은 2만239제곱미터이며 태국 국내업체 302곳, 해외업체 19곳 등 총 321곳의 업체가 참가했다. 전시기간 중에는 65개의 다양한 세미나 및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100여 개의 행사가 '에이트리엄 스테이지(마당 무대)'에서 열렸다. 다른 국제도서전들에 비해 상당히 긴 전시기간과 개장시간으로 2003년에는 75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올해에는 그 수가 백만을 돌파하였다.

저작권 전문 견본시라기보다는 일반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콕국제도서전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에게 독서를 장려하여 출판계를 활성화하려는 태국 출판인들의 노력과 열성에 기인한다. 많은 특별행사 가운데 인상 깊었던 것은 장애아동들을 초청하여 독서를 선물하는 행사였다. 도서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도서전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의미 있는 행사들이 개최됐던 방콕국제도서전은 문화전반의 기능을

## 한류타고 동남아 개척 나선 한국 출판

훌륭하게 소화했다. 전시장내에 마련된 발마시지 코너에서 마사지를 받으며 책을 읽는 태국인들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태국은 지난 6년간 건설한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수출 의존적인 구조인 데 반해, 태국의 경제는 풍부한 천연자원 및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내수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건설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태국 내에도 중산층이 재빠르게 형성되고 있으며, 이 중산층은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그렇듯 자녀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태국 출판 시장에서 아동도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으며,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실용서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반도서에 있어서는 연애소설이 태국 출판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의 일반 성인도서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아시아 전역에 뜨겁게 불고 있는 '한류'를 태국 출판계에도 확산시키기 위해 제2회 방콕국제도서전의 주빈국으로 참가했다. 180제곱미터 규모의 주빈국가관에는 10개의 국내출판사가 참가했으며, 36개의 출판사들

이 자사도서를 출판했다. 한국의 전통색(오방색)을 바탕으로 전통미를 강조하는 동시에 현대적 감각을 살린 한국관 전시대는 방문객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미려하고 세련된 전시대 구성으로 국가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선별된 한국의 우수도서들을 주제별로 전시하여 우리의 출판 수준을 태국 출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체계적으로 홍보했으며, 특히 국내 아동도서 및 문화 관련 화보집, 한국 역사서, 한국어 학습교재 등은 태국독자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다른 아시아 시장보다 계약금액이 비교적 저조한 관계로 현재로서는 메리트가 큰 시장은 아니지만, 태국 출판계에 일고 있는 한류열풍으로 한국 일반 성인도서와 아동도서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향후 수출이 기대되는 시장이라고 판단된다. 저작권 상담 미팅 수도 중국어권 도서전에 비해 적었던 것은 분명하나, 태국의 국민소득 등 경제수준이 한국에 비해, 또한 우리의 주저작권 수출대상지역인 중국어권보다도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첫 번째 국가관 참가의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태국 저작권 실무자들의 뛰어난 영어구사 능력과 수도인 방콕에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중

국어권 시장보다는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다. 같은 아시아권이란 사실도 중국어권 시장에서의 마찬가지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미 중국어권에서 커다란 성공을 거둔 한국 출판계는 중국어권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저작권 수출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그 새로운 시도를 태국시장에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리라 사료된다. 중국어권에 비해 속도는 느릴 수 있어도 본격적인 한류의 시대가 태국에도 올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는 한국의 일반 대중문화만이 소개되어 왔으나 올해 방콕국제도서전 주빈국 참가를 계기로 태국 및 동남아시아의 출판계에 '한류'를 확산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것이 이번 주빈국 참가의 가장 큰 의의라 하겠다. 첫술에 걸코 배부를 수는 없다. 충분한 시간과 치밀한 전략으로 태국시장 진출을 추진한다면, 태국 시내 고급 백화점마다 일본 서점이 있는 것처럼 한국 서점이 들어서는 날이 빨리 다가올 것이다. **◆◆**

### 방콕에 소개된 한국의 독서진흥 정책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제2회 방콕국제도서전 주빈국 참가를 계기로 태국 출판인들에게 우리나라 출판계를 홍보하기 위해 3월 27일 '한국출판현황 및 한국의 독서진흥 정책'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진행은 송영만 대한출판문화협회 국제담당 상무이사가 맡았다. 한 시간 반 가량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고영수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은 '한국 출판시장 현황'이라는 주제로 한국 출판역사를 소개하면서 우리 출판시장 현황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아직 충분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태국 출판계를 위해 박광무 문화관광부 출판신문과장이 '한국정부의 출판 장려 정책'을 소개하며 출판산업 발전에 있어 정부의 역할과 지원을 강조했다. 그 뒤를 이어 최대경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은 '한국, 2005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참가와 관련, 개략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태국 정부관계자, 태국 출판인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종 진지한 분위기에서 우리 출판계의 현황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내비쳤다. 특히 태국 출판인들은 한국과 태국 간의 출판교류가 이번 방콕국제도서전 주빈국 참가로 본격화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했으며, 이번 교류가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 1\_ 한국관 정면(입구). 1
- 2\_ 특별전 '책으로 보는 한국'에 전시된 책을 보고 있는 태국독자들. 4
- 3\_ 공연에 앞서 지신놀이를 하고 있는 사물놀이단 '들소리'. 5
- 4\_ 한국관광공사의 한국 관광 특별전 부스. 6
- 5\_ 한국관 참가사 담당자의 저작권 상담장면.
- 6\_ 방콕국제도서전 전시장 복도에 마련된 태국 베스트셀러전에 모인 인파.

